가요·재즈·포크…강진으로 음악여행 떠나요

생태탐방로·오감통 등서
17일간 각종 음악 공연
내달 9일 '갯돌' 거리 공연

강진은 오는 27일부터 17일간 다양한 음악 공연으로 귀가 즐거운 지역이 된다. 오감통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 모습. 〈강진군 제공〉

강진이 음악도시로 바뀐다. 오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열리는 '17일간의 음악여행' 축제를 통해서다. 가을 색이 짙어가는 시기, 황금빛 갈대로 물든 들판에 펼쳐진 풍요로움에 눈이 즐겁고 화려한 음악 공연으로 귀가 즐겁다.

'17일간의 강진 음악여행'은 음악을 즐기며 가을의 흥취를 느낄 수 있는 행사다. 강진만 생태탐방로와 강진읍 오감통 야외공연장 등을 무대로 17일간 강진 곳곳에서 다양한 음악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강진만 갈대숲 음악여행'과 '음악여행 프로포즈'는 오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하루 두차례씩 생태탐방로 작은무대에서 진행된다. '우리 삶의 힐링 콘서트'는 11월 4일 강진아트홀에서 열린다.

특히 강진읍 오감통 야외무대는 축제 기간 음악소리로 가득찬다.

우선, 최성수와 다섯손가락의 이두헌, 벗님들의 이치현은 오는 31일 오후 6시 오감통 야외무대에서 '10월의 마지막 날' 추억의 음악 여행을 관객들과 떠난다.

'가을밤의 낭만 재즈여행'은 11월 4일 오후 5시 국내 타악기의 거장 유복성 밴드, 정영애 재즈 리퍼블릭,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 등이 나서 관객들을 재즈의 세계로 이끈다.

장필순과 조동희가 꾸미는 포크여행도 오는 11월 11일 오후 5시 오감통 야외공연장에서 즐길 수 있다.

축제 기간, 매일 오후 1·6시에는 라디오 강진 특집방송 톰&제리 쇼가 라이브 공연 형태로 펼쳐진다.

라디오로 음악을 들으며 갈대숲의 정취를 담아갈 수 있는 '걷는 음악여행'도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오감통~강진만 갈대숲 구간에서 열린다.

이외 망호선착장에서는 오는 28일 오후 4시 '강진만 노을빛 누리축제'로 음악회가 열린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강진군이 기획한 무대로 수준 높은 공연을 접할 수 있다.

11월 9일에는 강진읍 중앙로를 중심으로 관악대와 풍물패, 그리고 전남 대표 공연예술전문 극단인 갯돌이 거리 공연에 나선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장흥군 제2대 공무원노동조합 출범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장흥목재산업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출범식〈사진〉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2017년 정기총회'를 열고 활동 방향과 실천계획을 제시했다. 노조는 아퍼 지부순회 간담회를 통해 조합원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노조는 인사, 후생복지, 근무조건 등 95개 항목으로 구성된 단체교섭안을 마련, 내년 초 본격 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위장일 위원장은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노동조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김재원 장흥귀족호도박물관장 대한민국 임업인 대상

김재원(58) 장흥귀족호도박물관장이 대한민국 임업인 대상을 받는다.

19일 장흥군에 따르면 김씨는 20일 경북 영주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주관으로 열리는 '산림문화박람회' 에서 임업인 대상을 수상한다.

김씨는 지난 2002년 국내 최초로 사립 '귀족호도박물관'을 설립, 운영하면서 호두나무를 생산, 유통, 전시, 체험, 축제를 진행해 연간 2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지역 임업 발전에 공을 쏟아온 점이 인정됐다.

김씨는 또 국내 최초 '장흥 귀족호도' 학술책자를 발간하는가 하면, '나무가 책이다'는 주제로 전국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86 차례에 걸쳐 인문학 강의를 진행해왔다.

김씨는 상금 500만원 전액을 장흥군 산림발전기금으로 기탁키로 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무위사 극락전·송광사 국사전·화엄사 대웅전·도갑사 해탈문…

화재보험 미가입 국보 사찰 목조건축물 수두룩

국보로 지정된 강진군 무위사 극락전 등 사찰 내 목조건축물의 80%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시 국가가 전액 복원 비용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가지정 사찰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국보 목조건축물 15건 중 12건은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진 무위사 극락전을 비롯, 순천 송광사 국사전, 구례 화엄사 대웅전, 영암 도갑사 해탈문 등이 화재보험을 들지 않은 국보 문화재로 조사됐다. 보물로 지정된 사찰 내 목조건축물은 80건 가운데 29건만 화재보험에 가입돼 미가입률이 63.8%였다.

보물인 해남 미황사 대웅전·응진당, 해남 대흥사 천불전, 영광 불갑사 대웅전, 순천 송광사 하사당·약사전·영산전 등도 화재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면 국가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보험 가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며 "문화재청이 사찰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강진만 생태공원 랜드마크 '큰고니' 조형물 내년초 완공

강진만 겨울진객 큰 고니를 사계절 볼 수 있게된다.

19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강진읍 강진만생태공원에 '강진만 생태공원 큰고니 상징조형물'〈조감도〉을 설치키로 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다.

강진만 생태공원은 곧게 뻗은 남포제방 주변 66만1100㎡ 규모로 갈대 군락지가 형성,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명소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기준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1131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201-1호 '고니'와 제201-2호 '큰고니'의 대표 월동지로 유명하다.

강진군은 이같은 점을 감안, 생태공원을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위해 30억원을 들여 강진만 생태공원의 랜드마크로 '큰 고니'를 형상화한 상징조형물을 설치키로 했다. 상징조형물은 '생물자원의 보고 강진만을 향해 바람에 몸을 맡기며 비상하는 큰고니의 날갯짓'을 표현하고 있다. 양 날개 사이에 전망대가 설치돼 강진만을 조망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조형물 크기는 가로 17m, 세로 28m, 높이 20m로 야간에도 머무를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여기에 나무 인도교를 설치, 강진만 양쪽 제방을 걸어서 오갈 수 있도록 조성하는 한편, 40m 길이의 흔들다리를 만든다는 구상도 세워놓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큰고니 상징조형물이 강진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기능과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20일부터 3일간 강진서 전남민속예술축제

남도의 전통 민속예술의 멋과 흥을 보여 줄 '제 43회 전남민속예술축제〈사진〉'가 20일부터 3일간 강진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34개팀, 총 1300여명이 참가해 농악, 민요, 민속놀이 등 다양한 민속예술분야의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전남도립국악단 공연과 더불어 퓨전 국악, 창작 국악 등 초청 공연도 열려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전남지역 각 시·군의 전통 민속예술 경연을 즐기며 남도의 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147-4, 11, 15번지 - 313평
209, 209-1번지 - 20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총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170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평당 70만원

"무 인 텔"

콘도 / 리조트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2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 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예정)
■ 요양병원, 연수원 등 용도변경 가능

친절상담 010-3605-5000